

# 문은 본래 열려 있다... 발밑을 보라

## 20년만에 열린 선화자법회

“문은 본래 열려 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에 들어와 있다. 만약 열린 문을 찾지 못하고 들어와 있음을 알지 못한 자가 있다면, 조용히 자기 발밑을 살펴 보라.”

2월 28일~3월 2일, 합천 해인사에서 선화자(禪和子)법회가 열렸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인각 스님은 입제식 대회에서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이치부터 강조했다. 스님은 20년 만에 열린 선화자법회를 “수행자들이 자신의 공부 밑거름을 선배 스님들과 만나 점검하고, 스스로 본 발심을 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회는 너무도 진지했다. 석종사 선원장 해국, 각화사 선덕 고우, 속사사 선원장 무어,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 등 내로라 하는 구함 수행자는 물론 강원을 졸업한 비구니 스님까지 2백여 명이 참석,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5년 미만의 초참 수행자여서 분위기가 매우 진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격려사에서 “선원 수좌들이 간화선의 종지를 신앙하고 중풍을 진작해 선을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가공과 수행공동 진작을 위해 전국 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합주 현상 인각)가 마련한 선화자법회는 무어 스님의 <신심명> 강설, 고우 스님의 ‘수행자의 자세’ 주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 선화자법회는...

선화자(禪和子) 법회의 연원은 선방 인가 해제일에 조실 스님의 상당법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선방 스님들에게 선어록 등을 통해 불법의 안목을 키우는 목적으로 개최된 선법회다.

선화자란 말은 통상 스님의 호칭이다. 선(禪)은 양변을 여린 마음을, 화(和)는 그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작용을, 자(子)는 이렇게 하는 수행자를 일컫는다.

지난 1986년 고우 스님(現 각화사 선덕)이 제안해 합천 해인사에서 개최됐으며, 당시 조계종 중장 성철 스님이 입제법문을, 범암사 선원장 서암 스님이 <육조단경>을 강의했다.

# 초참 수행자에게 ‘공부 길’을 열어 준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신심명> 강설은 초참 수행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됐다.

무어 스님은 <신심명>의 핵심을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임을 알게 한다’는 것과 출가수행자는 ‘본말하려는 간택심, 좋고 싫음을 따지는 증애심을 몽땅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어 스님은 특히 <신심명>을 수행자가 화두를 들고 끝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어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선종 3조 승찬 선사 <신심명>을 통해 이를 수행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란 아주 돈독하고 투철한 믿음으로, 온통 마음전체가 믿음으로 양심과 소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초발심

## 선배 선사들과 만나 공부 됴됨이 점점

### 무어스님 ‘신심명 강설’·고우 스님 특강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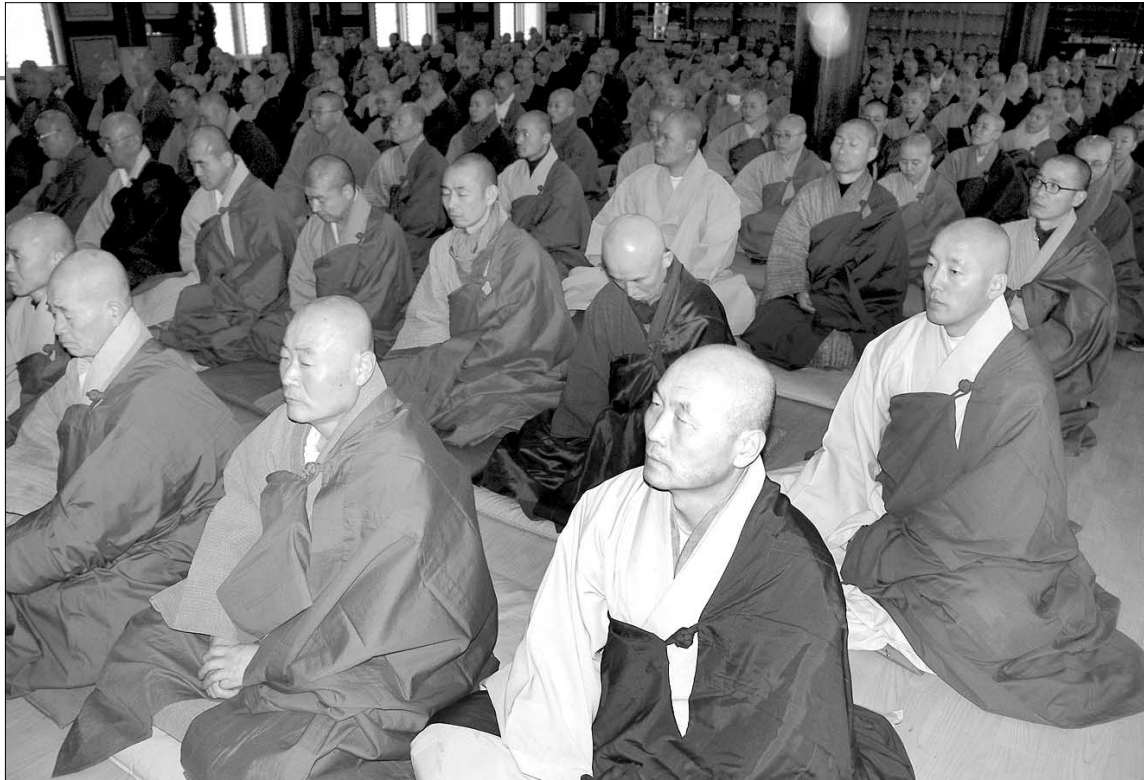
에서 견성하고 증득까지 하는 모든 믿음을 일컫는다고 강조했다.

무어 스님은 또 <신심명>이 수행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상대도의 성취라는 것을 수행자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데 있다”며 “본래성불”이란 것을 알면, 눈을 뜨고 보는 그 자리가 바로 깨침의 세계이고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수행자는 세간법을 싫어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것조차 쉬어야 한다”며 “수행자는 생사를 해탈 하려는 성불의 원력도 역대 조사의 법문에도 깰달리안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신심명> 강설이 진행되자 스님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연신 메모지에 강설 내용을 받아 적는 스님들도 보였다. 또 2시간가량의 강설이 끝나자 삼삼오오 모여 서로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986년 선화자법회에도 참석했다는 지운 스님(現 선원사)은 “수행은 공부의 장애가 되는 간택심과 증애심을 벗고 이를 막아버리는 작업”이란



전국선원수좌회가 20년만에 지난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주최한 선화자법회에서 선방수좌들이 무어 스님의 <신심명> 강설을 듣고 있다.

무어 스님의 <신심명> 강설을 듣고 자기공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말했다.

3월 1일 열린 고우 스님의 특강도 선원수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수행자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한 고우 스님은 “간화선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조사선의 올바른 이해”라며 “조사 스님들이 화두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야 하고, 못 깨닫는 수행자는 부득이 참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우 스님이 “수행자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자, 한 비구니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치기도 했다.

올해 강원에 입학한 한 스님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게 신심이 났다”며 “이번 선화자법회를 통해 스스로 공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어른 스님들에게 수행의 진척을 확인하게 돼 앞으로 수행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참가소감을 피력했다.

해인사=김철우 기자

## “정견 통한 선사상 확립 계기됐으면”

### 인터뷰 선화자법회 복원 주도 지환 스님

“참선수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견(正見)을 통한 선사상의 확립입니다. 막연한 참선수행은 수행의 길을 부실하게 하고, 자기 변화의 내용에 차이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선방 수좌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이 선화자법회를 복원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선화자법회를 기획한 지환 스님(사진·조계종 기본선원장)은 20년 만에 열린 선화자법회의 복원 배경과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 수행법입니다. 수행자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간화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화자법회 같은 법식의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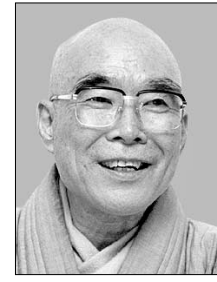
지환 스님은 특히 선화자법회의 중요성이 전국 선원의 초참 후배스님들의 ‘공부 길’을 알려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당대 고승들의 잇따른 열반, 그에 따른 선지식의 부족, 위빠사나 등의 제3수행법 난립 등이 이번이 선화자법회를 복원한 이유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간화선 수행자들이 더욱 분발심을 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수행자들이 시대흐름에 맞게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지성도 겸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스님은 이 같은 선화자법회가 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인원에 관계없이 매년 한 차례 법회를 열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 “의심하기 위해 의심하지 말라”

### 고우 스님 특강 요약



성철 스님은 20년 전 해인사에서 열린 선화자법회의 성격을 사상 정립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상정립은 수행자가 공부하기 전에 정견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성철 스님은 선적인 차원에서 정견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선어록 강의가 필요하다며 당시 <육조단경>을 강조했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할 때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다. 출가초심을 유지하려면, 세속의 행복 조건들을 내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부처도 조사도 행복의 조건들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 내면에서 찾으라 했다. 수행자는 밖으로 주어진 행복조건들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수행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럼 수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사선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 스님들이 화두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야 한다. 못 깨닫는 이는 부득이 참구를 해야 한다. 화두는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지 참구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알면 바로 깨닫고 모르면 의심을 해 알리고 공부하는 것이다. 후학들의 공부 자세는 이처럼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화두참구하는 자세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또 수행자는 끝없이 발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삼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선에서 삼매는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생가의 길도 말도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만약 그 자리에 조금의 일음일미가 붙으면, 삼매가 아니다. 삼매는 생각과 말이 끊긴 그 순간이다. 그 때 의심이 일어나 알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바로 삼매다. 때문에 수행자는 화두를 통해 알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는 한국불교의 간화선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불교 간화선은 조사선 전통이 살아있는 정통 선수행법이다. 이를 더욱 활발히 살려내 조사선 전통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이다.

이와 함께 수행자는 불법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정견을 세우는데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한다. 또 이런 한국불교의 선정통을 수좌들은 물론 재가불자들이 생활화하고, 능력껏 사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정리=김철우 기자

◆ ‘나의 수행법’은 기사 넘쳐 한주 쉽니다.

#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까.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암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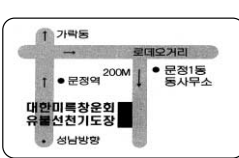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공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